

태국 설탕산업 현황 *

박 영 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연수원 차장)

1. 일반 연왕

설탕 및 사탕수수는 태국 농업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서 태국은 연간 설탕 수출 30억 달러규모로 브라질에 이어 세계 수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탕수수 생산에 종사하는 태국인은 20만 가구 1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사탕수수를 가공하여 설탕을 생산하는 다운스트림 산업도 발달되어 있다. 또한 사탕수수에서 발생하는 당밀(Molasses)은 에탄올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기타 설탕정제를 한 후 남은 사탕수수 부스러기는 바이오매스 전력을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태국에서 사탕수수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은 적정한 기후조건을 갖춘 북동부, 북부, 중부지방이다.

사탕수수는 재배하기가 쉽고, 가뭄에 잘 견디고, 투자비용이 적으며, 일정한 수확이 보장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매년 경작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사탕수수는 1년에 2~3번 수확이 가능하며 설탕 제조업체에 판매가 보장되는 장점도 겸하고 있다.

태국은 연간 약 1억 톤의 사탕수수를 생산할 수 있으며 설탕산업의 규모는 연간 2,000억 바트(66억 달러)이다. 태국이 2013년 기준 연간 생산하는 설탕은 760만 톤이며

* (yspark@kotra.or.kr).

이중 250만 톤은 국내소비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해외로 수출한다. 2013년 기준 태국에는 51개의 설탕 제조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Mitr Phol 그룹, Thai Roong Ruang Sugar 그룹, Thai Identity Sugar 그룹 등 3개 생산업체가 국내 설탕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기 3개 업체가 설탕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이들이 설탕의 시장가격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 설탕가격이 시장에 의하여 움직일 경우 태국은 국내소비를 위한 설탕의 부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정부는 정책적으로 국내 설탕가격을 조절하고 있다.

사탕수수설탕법(Cane and Sugar Act 1984)과 사탕수수설탕이사회(Office of the Cane and Sugar Board, OCSB)가 태국정부의 사탕수수와 설탕산업을 관장하는 법률과 기관이다.

사탕수수설탕이사회(OCSB)는 사탕수수 생산자와 설탕 제조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설탕 제조업체들이 생산능력을 확대함에 따라 사탕수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내각에서는 설탕제조업체들의 공장설립 또는 생산능력 확대 시 승인을 받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2. 생산 연왕

태국의 농경지는 2,090만 헥타르로서 전체 국토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경작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벼농사인데 1,110만 헥타르로 전체 경작지의 절반이상이나 된다. 사탕수수의 경작지는 약 100만 헥타르로 전체 농경지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태국 농작물 재배 면적 현황

순위	농작물	농경면적(백만 헥타르)	농작물/농경면적(%)
1	벼	11.1	53.1
2	과일	4.6	22.0
3	카사바	1.3	6.2
4	옥수수	1.1	5.2
5	사탕수수	1.0	4.7
	기타	1.8	8.6
	합계	20.9	100

자료: Parin Amatyakul, 2010, *Thai Sugar Situation*, Mitr Phol Sugar Corp., Ltd.

사탕수수설탕이사회(OCSB)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태국의 2013/2014년 기간 사탕수수 경작지는 140만 헥타르로서 상기 표에 나온 수치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실제로 2013/2014년 기간 사탕수수 경작지는 2010/2011년과 비교하여 3년 동안 16만 6,000 헥타르가 증가하였다. 참고로 태국에서는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라이(rai)를 많이 사용하는데 1라이(rai)는 1,600km² 또는 0.16 헥타르에 해당한다.

사탕수수의 재배면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0/2011년 기준 북동부 지역의 재배면적이 360만 라이로서 전체면적의 4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부지역 250만 라이(30.1%), 북부지역 170만 라이(20.3%)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2014년 기간 중 사탕수수 생산은 106백만 톤, 설탕 생산은 1,140만 톤으로 각각 5%, 14%의 증가를 나타냈는데 이는 태국의 사탕수수 및 설탕생산에 있어서 기록적인 수치이다.

표 2 태국 사탕수수 생산현황

단위: 천 톤, 천 헥타르

구분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경작 면적	1,250	1,300	1,371	1,416
재배 면적	1,200	1,280	1,361	1,411
생산	95,700	100,000	100,750	105,800
설탕 추출	95,400	99,700	100,000	105,000
에탄올 추출	300	300	750	800
전체 추출	95,700	100,000	100,660	105,800

자료: USDA, 2012, *Thailand Sugar Annual 2012* USDA.

표 3 태국 설탕 생산현황

단위: 천 톤

구분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전년 재고	2,343	2,319	2,810	3,616
생산	9,663	10,170	10,024	11,390
합계	12,019	12,489	12,834	15,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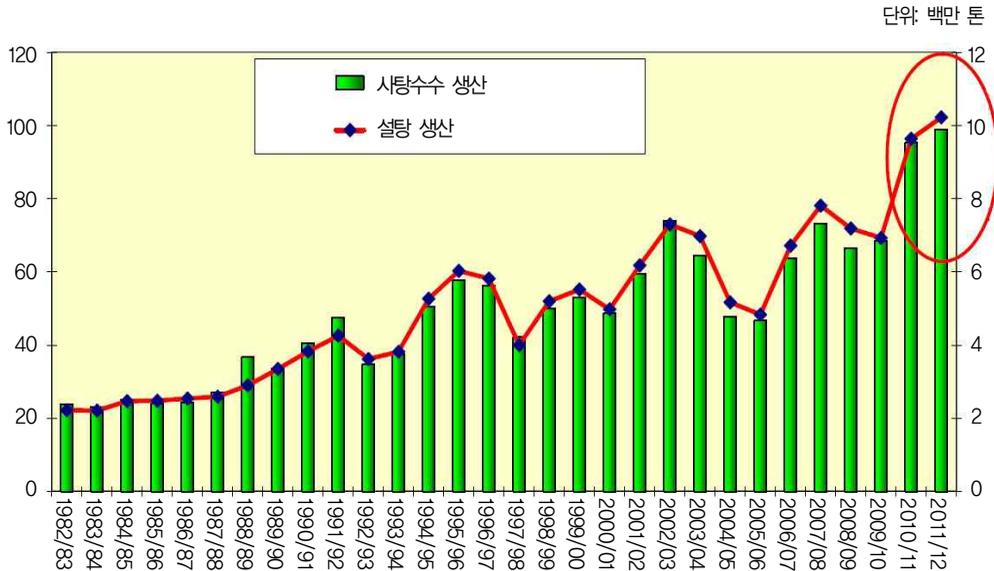
자료: USDA, 2012, *Thailand Sugar Annual 2012* USDA.

이처럼 태국의 사탕수수 및 설탕의 생산이 급증한 이유는 사탕수수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기후조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였기 때문이다. 2011년 하반기 태국 중부지방에 큰 피해를 입힌 대홍수로 인하여 사탕수수 재배에도 일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향후

생산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태국의 사탕수수 및 설탕생산량의 연도별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지난 30년 동안 약 5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5/2006년 기간 대비 2011/2012년의 사탕수수 및 설탕생산은 약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 태국 연도별 사탕수수 및 설탕 생산 증가 추세



자료: Rangsit Hiangrat, 2012, *Impact of Thai Sugar Policy on the World Sugar Economy*, FAO.

상기 그래프와 같이 최근 태국의 사탕수수와 설탕 생산이 증가하면서 동 산업의 전망은 더욱 밝아 보인다. 그러나 사탕수수 경작지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수확에 필요한 노동인력의 부족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사탕수수를 분쇄하여 만드는 설탕은 원당(Raw), 백설탕(White), 정제당(Refined) 등이 있으며 생산비율은 매년 변하나 일반적 기준으로 원당 60%, 백설탕 20%, 정제당 20%를 각각 차지한다.

태국의 사탕수수 분쇄(crushing) 시기는 일반적으로 11월에 시작하여 태국 신년 송크란이 시작되는 4월에 끝나는데 가장 분쇄가 활발한 시기는 1월경이다.

사탕수수 원재료 대비 설탕 생산량의 비율은 2008/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사탕수수가 성숙하지 않은 시기의 조기 분쇄, 부적절한 비료 사용, 가뭄 등이 지적되고 있다.

3. 수출입 현황

3.1. 수출

태국은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설탕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다. 태국이 설탕 수출 세계 2위가 곧 설탕제조 2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태국은 지난 수 년 동안 설탕제조에 있어서는 브라질, 인도, EU, 중국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세계 설탕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순위	국가	2011/12	2012/13	2013/14
1	브라질	36,150	38,600	37,800
2	인도	28,620	27,337	27,045
3	EU	18,320	16,655	16,100
4	중국	12,341	14,001	14,346
5	태국	10,235	10,024	11,390
6	미국	7,700	8,148	7,693
7	멕시코	5,351	7,393	6,731
8	파키스탄	4,520	5,000	5,215
9	호주	3,683	4,250	4,300
10	러시아	5,545	5,000	400
11	과테말라	2,499	2,778	2,852
12	인도네시아	1,830	2,300	2,300
13	필리핀	2,400	2,400	2,450
14	남아프리카공화국	1,897	2,020	2,425
15	콜롬비아	2,270	1,950	2,300
16	터키	2,262	2,130	2,300
17	이집트	1,980	2,000	2,013
18	아르헨티나	2,150	2,300	1,780
19	우크라이나	2,300	2,400	1,300
20	베트남	1,400	1,600	1,650
	기타	18,713	19,200	19,313
	전체	172,166	177,486	175,703

자료: USDA, 2014. *Sugar: World Markets and Trade*. USDA.

브라질, 태국과 더불어 설탕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호주, 멕시코, 과테말라, EU, 인도 등이 있다. 특히 브라질은 2013/14 기준 전체 설탕수출의 46.8%나 차지할 정도로 국제 설탕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한편 태국은 세계 설탕수출의 13.4%를 차지하고 있다.

표 5 세계 설탕 수출 현황

단위: 천 톤

순위	국가	2011/12	2012/13	2013/14
1	브라질	24650	27,650	26,200
2	태국	7898	6,693	7,500
3	호주	2800	3,100	3,190
4	멕시코	985	2,090	2,543
5	과테말라	1619	1,911	1,950
6	EU	2343	1,662	1,500
7	인도	3764	154	1,800
8	남아프리카공화국	271	356	760
9	쿠바	830	757	850
10	이집트	935	569	675
	기타	8885	9,548	8,945
	전체	54980	54,490	55,913

자료: USDA, 2014. *Sugar: World Markets and Trade*, USDA.

최근 수년 동안 태국의 설탕 수출은 3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나 2013년은 28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설탕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았는데도 이처럼 수출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설탕 수출가격의 하락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12년 태국의 설탕 수출가격은 FOB 기준 톤 당 1만 6,593 바트였는데 이 가격이 2013년에는 1만 3,265 바트로 하락하였다.

태국이 설탕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로서 2013년 기준 6억 7,000만 달러를 수출하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 감소하였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이 설탕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일본, 캄보디아,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이 있다.

태국의 설탕수출에 있어서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전체 수출에서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비중이 90%나 차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세안국가로의 수출도 전체 태국설탕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설탕관련 수출 품목은 구체적으로 원당, 백설탕, 당밀(molasses) 등으로 구분한다. 태국의 설탕 종류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수 년 동안 원당의 수출이 백설탕 보다 높은

표 6 태국의 설탕 수출 현황(HS CODE 1701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1	2012	2013
	전체	3,635.1	3,952.6	2,860.2
1	인도네시아	708.7	852.4	673.5
2	일본	528.7	444.3	337.6
3	캄보디아	262.3	324.5	308.5
4	한국	227.2	254.5	215.7
5	말레이시아	177.7	250.8	143.9
6	중국	160.2	510.6	132.5
7	수단	37.5	3.5	107.1
8	대만	124.5	159.1	97.1
9	베트남	181.0	182.4	90.0
10	이라크	212.1	223.7	75.4
11	케냐	29.1	37.8	71.7
12	싱가포르	113.0	85.7	59.9
13	미얀마	21.6	28.4	57.8
14	지부티	-	-	38.5
15	필리핀	115.6	50.1	37.8
16	스리랑카	28.5	33.5	34.6
17	탄자니아	17.9	16.3	31.6
18	요르단	6.6	29.7	28.8
19	호주	67.7	37.7	23.8
20	홍콩	12.1	21.4	21.3

자료: 태국상무부 (www2.ops3.moc.go.th).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태국의 원당 수출은 15억 달러이며 백설탕 수출 12억 9,000만 달러, 당밀 수출 5,7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표 7 태국의 종류별 설탕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종류	2011	2012	2013
원당	2,131	2,626	1,506
백설탕	1,460	1,248	1,297
당밀	44	78	57
전체	3,635	3,952	2,860

자료: 태국상무부 (www2.ops3.moc.go.th).

3.2. 수입

태국은 설탕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설탕 수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설탕과 관련한 제품 중 초콜릿을 포함한 설탕과자(HS CODE 1704)의 경우 연간 6천 800만 달러 이상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태국이 설탕과자를 주로 수입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 스위스,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다.

표 8 태국의 설탕과자(HS CODE 1704 기준)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1	2012	2013
1	인도네시아	12.1	19.7	20.3
2	베트남	16.2	15.5	11.0
3	중국	7.3	7.6	9.0
4	필리핀	10.0	8.8	7.9
5	말레이시아	2.6	3.8	4.7
6	스위스	2.6	2.0	3.0
7	독일	2.1	2.7	2.5
8	영국	1.1	1.3	1.6
9	터키	0.1	0.2	1.3
10	미국	0.7	0.7	1.0
11	벨기에	0.5	0.7	1.0
12	싱가포르	0.9	1.0	0.9
13	일본	0.5	1.6	0.8
14	프랑스	0.7	0.9	0.6
15	이태리	0.3	0.3	0.4
16	슬로바키아	-	0.0	0.3
17	아일랜드	0.3	0.1	0.3
18	스페인	0.2	0.2	0.3
19	네덜란드	0.3	0.2	0.2
20	대만	0.2	0.2	0.2
	전체	60.2	68.5	68.2

자료: 태국상무부 (www2.ops3.moc.go.th).

4. 가격 연왕

4.1. 국내 설탕시장 가격 구조

태국 국내시장의 설탕가격은 산업부와 상무부 2개 부처가 결정한다. 산업부 산하의 사탕수수설탕이사회(OCSB)는 그레뉴당(granulated sugar)의 공장도 가격(도매가격)을 결정하며, 상무부의 국내무역국(Department of Internal Trade)은 설탕의 소매가격을 결정한다.

설탕의 공장도 가격은 2008년 5월 이후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 2014년 현재 정제당 가격은 kg당 20.33바트(19바트 + 부가세 7%)이다. 설탕의 소매가격 역시 2008년 정해진 가격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백설탕의 경우 kg 당 21.85바트, 그리고 정제당 22.85바트를 나타내고 있다.

원당의 가격은 국제시세에 따라 변동된다. 일반적으로 국제 설탕시세는 국내설탕시세보다 더 낮은데 이는 태국을 포함한 설탕수출국들이 국내 설탕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이에 따라 발생한 잉여생산물을 낮은 가격에 국제시장에 판매하기 때문이다.

4.2. 사탕수수 가격 구조

태국 정부는 매년 사탕수수 가격을 사탕수수 재배업자와 설탕제조업체 사이에서 중재한다. 정부는 또한 시중금리 보다 낮게 사탕수수 재배업자들에게 사전에 대부하고 재배업자들은 사탕수수 수확 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신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84년 발효된 사탕수수설탕법(Cane and Sugar Act 1984)은 사탕수수 재배업자와 설탕제조업체간 이윤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사탕수수 재배업자는 설탕 및 당밀의 국내외 판매로 얻은 수익금 중 70%를 받으며 나머지 30%는 설탕제조업체가 갖게 된다.

사탕수수설탕이사회(OCSB)는 사탕수수의 연간 사전가격을 정한 이후 실제적인 생산 및 판매실적을 취합하여 최종가격을 결정한다. 현재 사탕수수 사전가격은 톤 당 1,000바트 내외이다.

지난 30년 동안 태국의 사탕수수 가격 변동추세를 살펴보면 수년에 걸쳐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중반 톤당 약 500바트의 가격대에서 현재 1,000바트로 가격이 두 배로 상승하였다.

4.3. 설탕 수출 가격

태국설탕의 수출가격은 설탕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원당과 백설탕을 비교할 경우 백설탕의 수출가격이 원당의 수출가격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2013년 기준 태국 원당의 수출가격은 톤 당 1만 3,265바트인데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431.66 달러이다. 한편 2013년 기준 태국 백설탕의 수출가격은 톤 당 1만 4,969바트이며 이는 487.11달러이다.

표 9 태국 설탕 수출가격 현황

단위: 바트/톤

종류	2010	2011	2012	2013
원당(raw sugar)	13,928	16,661	16,593	13,265
백설탕(white sugar)	17,358	19,024	18,025	14,969
환율(바트/달러)	31.69	30.49	31.08	30.73

자료: USDA, 2014. *Thailand Sugar Annual 2014*, USDA.

5. 태국 설탕산업 구조

5.1. 경쟁력

표 10 태국 설탕산업 경쟁력 SWOT 분석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 사탕수수 경작면적 증가 - 적은 내부수요 - 저렴한 선적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인력 부족 - 자연재해(홍수, 가뭄) - 사탕수수 대비 설탕 생산비율 감소
기회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설탕시장 규모 확대 - 국제 설탕가격 지속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2015 - WTO - 환경문제

자료: KOTRA 방콕무역관.

태국은 사탕수수 재배에 적합한 기후, 정부의 산업지원 정책, 사탕수수 경작면적 증가 등 유리한 조건으로 세계 2위의 설탕 수출국이 되었다. 특히 설탕은 경기불황에도 수요가 크게 줄지 않는, 안정적 수요가 보장된 강점을 지니고 있어 태국 설탕산업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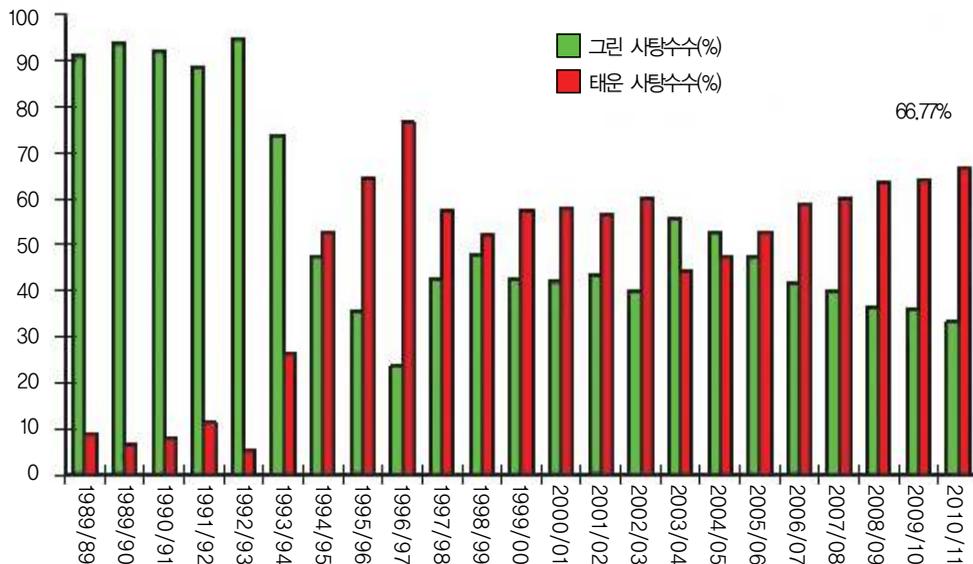
한편 태국 설탕산업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요소로는 사탕수수 경작면적 및 생산량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 매년 되풀이되는 극심한 홍수 및 가뭄피해, 그리고 최근 감소세를 나타내는 사탕수수 대비 설탕생산 비율 등이다.

사탕수수 재배농민들은 노동인력 부족에 따라 생사탕수수를 수확하기 보다는 사탕수수를 태워서 수확하는 방식을 점차 많이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사탕수수를 태울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설탕생산 비율도 감소한다는 점이다.

태국 설탕산업이 직면한 외부 위협으로는 2015년부터 구축될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와 WTO 규정이 있다.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실현될 경우 아세안 국가 간에는 제품뿐만 아니라 자본, 노동과 같은 제품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왕래가 실현되는 단일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현재 태국이 시행하고 있는 사탕수수 재배업자와 설탕제조업체가 이윤공유제, 국내 설탕가격의 인위적인 설정 등은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실현 이전에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현재 태국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설탕수출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덤핑행위에 대하여 WTO가 언제까지 예외적인 태도를 취할지에 대하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태국 태운 사탕수수(Burnt cane) 증가 추세표



자료: Rangsit Hiangrat, 2012, *Impact of Thai Sugar Policy on the World Sugar Economy*, FAO.

5.2. 관련 규정

태국은 경제의 안정성 유지와 사탕수수 재배업자의 보호, 설탕제조업체와 소비자의 공정성 보장, 사탕수수와 설탕 생산 및 판매의 통제 등을 목적으로 1984년 “사탕수수 설탕법(Sugarcane and Sugar Act)”을 제정하였다.

설탕제조업체는 국내시장에 원당을 판매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원당의 판매량과 가격을 결정한다.

또한 설탕의 유통, 무역과 관련하여 정부는 쿼터A, 쿼터B, 쿼터C를 각각 지정하고 있다.

- 쿼터A: 정부는 각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에 생산용량을 고려하여 각 설탕제조업체에게 백설탕과 정제당의 쿼터를 부여한다. 승인받은 도매상이 정부에서 확정한 가격으로 국내소비만을 목적으로 이 설탕을 판매한다.
- 쿼터B: 국제무역상들에게 할당된 원당 쿼터이다. 사탕수수 재배업자 대표, 정부기관, 설탕생산업체로 구성된 태국사탕수수설탕조합(Thailand Cane and Sugar Corporation, TCSC)은 이 쿼터 내 원당의 가격 및 판매를 책임지고 있다. TCSC는 쿼터의 절반을 국제설탕 중개업자에게 할당하며 나머지 절반은 태국 설탕제조업체에게 수출용으로 할당한다.
- 쿼터C: 상기 쿼터A와 쿼터B를 제외하고 남은 잉여 원당, 백설탕, 정제당을 의미한다. 이 잉여물은 국가의 제재 없이 자유로이 수출할 수 있다. 설탕생산업체들은 쿼터B에서 설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수 없다.

5.3. 정부 지원정책

사탕수수설탕이사회(OCSB)는 1984년 제정된 법에 의하여 사탕수수설탕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OCSB의 의무는 사탕수수 및 설탕산업의 발전과 유지를 위하여 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의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태국정부는 2008~2011년 동안 국가사탕수수발전계획(National Cane Development Plan)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의 목적은 사탕수수 생산량을 당초 7,330만 톤에서 9,500만 톤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표 11 국가사탕수수발전계획(2008-2011)

구 분	2008	2011	
	실제	목표	실제
생산(백만 톤)	73.20	95.00	95.36
사탕수수 생산비율			
-톤/라이	11.81	15	12
-톤/헥타르	74	94	74
C.C.S	10.4	13.0	11.8

주: C.C.S는 Commercial Cane Sugar, 사탕수수 내 설탕 함유비율.
 자료: 사탕수수설탕이사회(The Office of the Cane and Sugar Board), (www.ocsb.go.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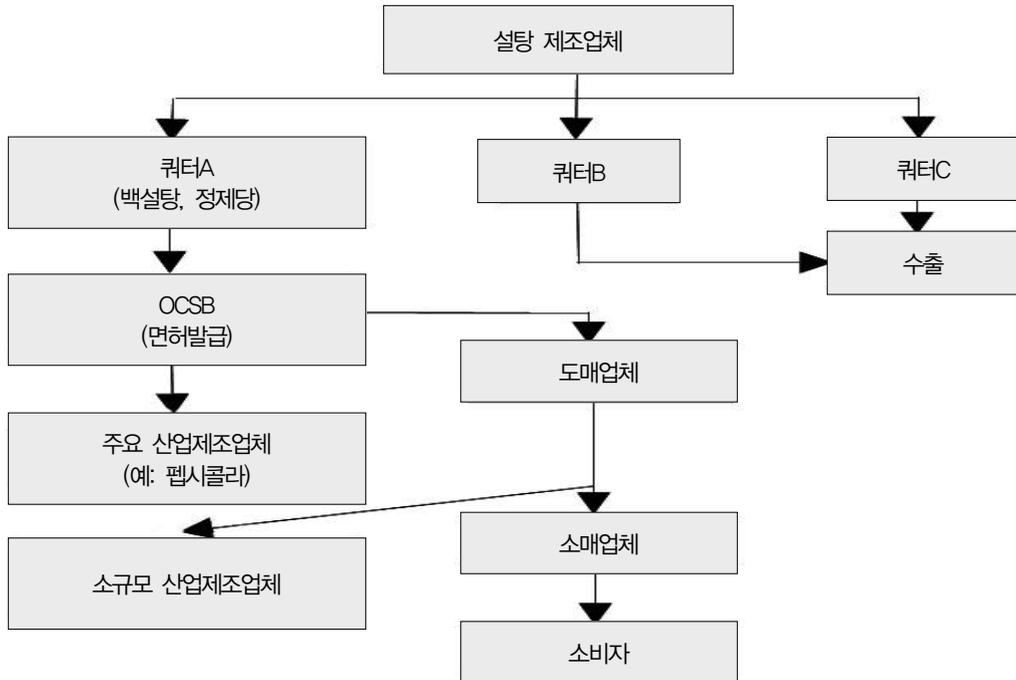
상기 계획이 2011년에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2012~2015년 국가사탕수수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은 정책수행을 통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 농가 재배능력 향상 및 사탕수수 가격 안정
- 농가 및 설탕공장의 생산성/효율성 향상
- 설탕공장의 확장 및 이전
- 다각화
- 그린산업화
- 국내 설탕가격, 이윤공유제, 법률 및 규정, 사탕수수 및 설탕기금 등 산업 재정비
- 경작물 관리 및 영농기계화에 대한 저리 대출
- 연구개발에 집중
- 사탕수수 품종 개량

5.4. 유통 구조

태국 내 설탕의 유통은 정부의 쿼터 시스템에 의하여 움직여진다. 사탕수수설탕법 (1984) 17조에 따르면 OCSB가 매년 쿼터A, B, C를 배정한다. 국내 시장의 경우 설탕 도매상 및 설탕을 활용하여 과자 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OCSB로부터 면허를 획득한 이후 설탕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림 3 태국 설탕유통 구조도



자료: 사탕수수설탕이사회(The Office of the Cane and Sugar Board), (www.ocsb.go.th).

5.5. 설탕산업 전망

태국은 2011년 하반기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산업 및 벼농사가 큰 타격을 입었으나 사탕수수 재배지역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세계 설탕가격의 지속상승과 국내 사탕수수가격의 상승으로 태국 농민들은 사탕수수 경작지 확대, 비료 및 용수 공급 확대, 2모작 등을 통하여 재배량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미국 농업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은 설탕공장의 지속적인 확장에도 불구하고 2014/15 기간의 사탕수수 생산을 약간 감소한 1억 500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기후조건의 영향 때문이다. 태국은 2014년 하반기 엘리뇨 현상으로 강우에 잠긴 경작지가 확대되어 평균 사탕수수 소출(所出)이 라이(rai) 당 11.5 톤으로 전년 대비 4%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사탕수수에서 설탕추출 비율 역시 사탕수수 톤 당 100kg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2014/15년 태국의 설탕생산을 전망하면 1억 4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9%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태국의 중장기적인 설탕산업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

국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중국의 설탕 수입수요가 매년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의 2012년 1월 보고서에서도 중국이 도시화되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일인당 설탕섭취량도 증가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현재 중국의 연간 1인당 설탕 섭취량은 7.6kg으로서 인근 선진국 일본 29kg, 한국 36kg 보다 적는데 향후 2020년까지 중국인의 설탕섭취량은 63%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탕수수는 또한 에탄올 생산,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생산에도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태국에서 쌀, 카사바, 고무와 더불어 중요한 농작물로 각광받고 있다.

참고문헌

USDA. 2014. *Thailand Sugar Annual 2014*. USDA.

USDA. 2014. *Sugar: World Markets and Trade*. USDA.

Parin Amatyakul. 2010. *Thai Sugar Situation*. Mitr Phol Sugar Corp., Ltd.

Rangsit Hiangrat. 2012. *Impact of Thai Sugar Policy on the World Sugar Economy*. FAO.

참고사이트

태국설탕생산조합 (www.thaisugarmillers.com)

사탕수수설탕이사회 (www.ocsb.go.th)

태국상무부 (www2.ops3.moc.go.th)

네이션 (www.nationmultimedia.com)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